

1 장_서산문화원

섬과 하늘과 바다, 고파도 갤러리에 담기다

7 월 8 일 금요일_ 배를 타고 오신 미술선생님

우리 학교에 예쁜 문화원 선생님과 멋진 미술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침에 들어오는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요일 아침마다 미술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술선생님은 붓과 스케치북, 지우개와 4B 연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붓으로 색 겹쳐 칠하기를 하였습니다. 내 동생 윤호와 은영이 그리고 규담 오빠와 연지는 즐겁게 색칠공부를 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고 미술선생님과의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 참! 저는 5 학년 2 반 김은지아입니다.”

7 월 22 일 햇별이 짹짹한 금요일_ 신기한 풍경화 수업

연필로 물건 자세히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연필을 잡고 한 방향으로 계속 그으면 검정색이 메워지는데, 덧칠을 할수록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생겨났습니다. 연지와 저는 계속 덧칠만 하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했는데, 나중에는 어두운 면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할수록 그림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필로 자세히 그리기를 한 다음에는 그리고 싶은 마을 풍경을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색칠하는 공부도 했습니다. 똑같은 색인데 붓칠을 하는 방향과 덧칠에 따라서 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느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을 졸라 스케치북을 집에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 월 29 일 너무 더운 금요일_ 관찰하며 그리기

스케치북에 연필로 면 칠하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필을 뉘어서 바르게 잡고 직선으로 선긋기를 연습하였습니다. 힘들고 지루해서 피를 부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잠시 후, 미술선생님께서 면 칠하기 공부가 끝나자 나뭇잎을 따와서 그대로 그리는 연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나뭇잎을 따러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막상 나뭇잎을 따려고 하니 나뭇잎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마다 나뭇잎이 다르고, 같은 나무의 나뭇잎도 자세히 보면 참 달랐습니다.

8 월 5 일 금요일_ 스케치를 잘하면 색칠도 쉬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뭇잎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내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필로 덧칠을 하면 면의 느낌과 모양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덧칠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뭇잎을 열심히 그리며 욕심을 내 보았습니다. 은영이는 선 긋기가 재미있는지 계속 선 긋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 긋기가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사물을 골라 자세히 그리고 색칠까지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밑그림을 그렸는데, 미술선생님께서 아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색칠은 스케치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나무와 새,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옛날에도 그렸던 것들인데 막상 무슨 색을 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술선생님께서서는 자신 있게 색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그림을 자세히 그릴수록 색칠도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지와 많이 떠들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미술선생님은 “은지아와 연지가 많이 떠들고 웃고 노는 것 같은데 연습량이 제일 많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웃으며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림도 더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월 12 일 비가 많이 오는 금요일_ 변신돌멩이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교실에서 미술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주워 온 크고 작은 돌에 아크릴 물감으로 모양을 정한 후 색칠하여 꾸미기를 하는데, 물감이 빨리 마르지 않아서 무척 답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습기가 많아서 물감이 금새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학년 윤호와 6 학년 규담이 오빠는 색이 선명하게 나왔는데, 연지와 저는 색이 잘 안 나와서 속이 상했습니다. 미술선생님께서서는 돌에 먼저 흰색을 입히고 나서 칠하고 싶은 색을 칠하면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지는 딸기와 예쁜 토끼를 꾸몄고, 저는 사람 얼굴과 하마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조금밖에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8 월 19 일 금요일_ 우리가 그린 그림은 동물 벽화

벽화 그리기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 끝에 있는 큰 창고와 작은 창고의 벽에 아크릴 물감으로 벽화를 꾸몄습니다. 미술 선생님과 함께 다른 두 분의 미술선생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멋진 나무와 얼룩말을 그리셨고, 우리들은 큰 창고 벽에 상어와 물고기를 그리고, 창문에는 나비를 그려 꾸몄습니다. 연지가 친척집에 가서 함께 못한 것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상어와 물고기를 그렸는데 별로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술시간은 언제나 행복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선생님들께서 그리신 얼룩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멋졌습니다.”

8 월 26 일 금 모래빛 반짝이는 금요일_ 학교에 생긴 야외 전시관

갤러리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학교를 갤러리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윤호와 저는 소라 껍데기에 아크릴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고, 크고 작은 돌멩이에 귀엽게 옷을 입혔습니다.

규담이 오빠는 전에 먹었던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하얗게 색칠을 하여 나뭇가지에 걸쳐놓았습니다. 우리들은 버려진 수차도 힘을 합쳐서 흰색을 입혀 장승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플라스틱 공은 나무에 매달아 보름달을 만들고, 길에 버려진 전봇대 부속품을 주워 지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꾸민 소라와 돌멩이를 잔디밭에 놓아 갤러리를 꾸미니 멋진 야외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9 월 5 일 오늘은 **금요일** 아니고 **월요일**_ 이젤이 생겼어요.

월요일이지만 특별히 미술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젤이 도착해서 우리들은 모두 화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꾸며놓은 장승에 색칠을 하기 전에 교실에서 스케치북에 장승을 상상하여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감 다루는 것과 스케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쉬었습니다. 이젤 위에 스케치북을 걸쳐놓고 그리니 기분도 아주 새롭고 우리가 멋지게 느껴져 씩씩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운동장에 꾸며진 갤러리에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월 9 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요일**_ 갤러리에 들어 **선 장승**

지난 시간에 스케치북에 그렸던 장승을 보며 운동장에 있는 장승에 직접 색을 칠했습니다. 우리들은 얼굴, 옷, 손에 여러 가지 색을 마구 묻혀가며 신나게 칠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옷에 물감이 묻는다며 걱정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앞치마를 두르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물감이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그림을 그릴까 궁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규담이 오빠가 양복을 입힌 장승은 아무래도 너무 새까매서 걱정스럽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고 끝냈습니다.

9 월 16 일 **금요일**_ 미술만 하고 **싫은 금요일**

지난 시간에 꾸몄던 장승에 다시 흰색을 칠했습니다. 좀 더 멋진 장승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면 우리들이 꾸민 것이

미술선생님 마음엔 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장승에 색칠을 한 뒤에는 창고의 벽에 그린 그림에 색칠을 하였습니다. 흰색으로 그려놓은 바탕 그림 위에 예쁘게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규담 오빠의 고래, 나의 물고기 그리고 연지의 꽃과 은영이의 나무열매까지 점점 멋진 벽화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수업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그려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더 그리고 싶어서 너무 아쉬워했더니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 끝나고 작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야호!”

9 월 23 일 금요일_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미술 시간

미술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서 장승에 색을 칠하시는 동안 우리들은 벽화에 색칠을 했습니다. 은영이는 선생님이 그려 준 나무에 꽃과 열매를 그립니다. 그리고 저와 규담이 오빠가 그림을 그리고, 연지는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로 역할을 정했습니다. 다섯이서 함께 역할을 맡아 작업을 하면 혼자 그리는 것보다 다섯 배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0 월 7 일 비오는 금요일_ 바닷속 세계 상상하여 그리기

비오는 날의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다들 쉬고 있겠죠?

연지와 나는 잠수함을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고, 윤호와 은영이는 바닷속에서 물고기와 같이 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규담 오빠는 해저도시를 그린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 월 16 일 정신없이 바쁜 일요일_ 물에서 온 친구들

어제 저녁에 배를 타고 물에서 온 공부방 친구들 60 명과 같이 운동장의 놀이기구에 색칠하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으로 놀러 나간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물의 친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더니 고단합니다.

10 월 21 일 금요일_ 명화 그리기

‘모나리자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모나리자 모습을 보면서 연필로 스케치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미술선생님은 명암까지 넣어서 그린 다음 색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규담 오빠가 제일 비슷하게 그려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지와 저는 스케치는 열심히 했지만, 귀찮다고 색연필로 칠하는 바람에 꾸중을 듣고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스케치를 자세히 하고 색칠을 하니 제법 멋진 명화가 완성되었습니다.

10 월 28 일 비 쏟아질 것 같은 금요일_ 나는 어린 화가

날이 흐리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교실에서 그리고 싶은 것 그리기를 했습니다. 규담 오빠는 ‘우주세계’, 저는 ‘겨울 호숫가’, 연지는 ‘눈사람 만들기’, 윤호는 ‘가을 운동회’, 은영이는 ‘하늘을 나는 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술선생님께서 규담 오빠 그림만 쳐다보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규담 오빠 그림이 가장 멋지게 완성되어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제게 **담임**선생님께서 “은지아는 조그맣게 자기 마음을 호수에 담고 있는 수줍은 가을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화폭에 드러났다” 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연지와 윤호와 은영이도 제게 ‘어린 화가’ 같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11 월 4 일 금요일_ **모래성도 작품이 될 수 있대요**

미술선생님과 우리들은 돌멩이를 주우러 백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모래성을 만들어 백사장에 갤러리를 꾸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로 장난하듯 만드는 모래성이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만들었고, 선생님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작품을 찍었습니다.

미술선생님은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미술을 배우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미술은 아주 쉽고, 재미있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사장에서 만들기가 끝나고 우리들은 함지박에 돌을 가득 담아 신나게 끌고 학교로 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평상에 돌을 펼쳐놓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한 다음 운동장 잔디밭에 꾸며 놓았습니다. 점점 우리 학교는 ‘고파도 갤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팠던 연지네 강아지 껌이가 멧쟁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지와 우리들은 정말 껌이가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껌이도 고파도 갤러리가 마음에 드는지 토끼처럼 짹짹 뛰며 좋아했습니다.

11 월 11 일 꾸물꾸물 흐린 금요일_ 양초 만들기.

우리의 수업을 보기 위해 아침 배를 타고 서울에서 여러 분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미술선생님이 준비해 온 파라핀으로 ‘양초 만들기’를 했습니다. 먼저 물을 담은 큰 그릇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작은 그릇에 파라핀을 녹입니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잘게 부수어 파라핀이 녹고 있는 그릇에 넣어 색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컵에 색깔별로 녹인 파라핀을 담아 식히는 데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규담 오빠가 더 예쁜 모양을 만드려고 했는지 소라와 조개껍데기에 파라핀을 담고 그 위를 풀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창의력이 돋보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수업을 보기 위해 온 손님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만드는 걸 보고만 계시다가 나중에는 함께 만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어른들도 미술은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미술수업 시간이 지났지만, 손님들도 우리들도 너무 재미있어 계속 만들었습니다.

11 월 18 일 금요일_ 포스터 그리기.

오늘 3 학년에 한솔이가 전학을 와서 우리는 여섯 명이 미술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늘었는데 교실이 꽉 차 보였습니다. 미술선생님께서는 포스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하신 다음, 우리에게 그리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윤호와 한솔이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저와 연지는 고파도 관광포스터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담 오빠는 ‘환경오염으로 거지가 된 지구를 살려요’ 라는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포스터 물감으로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11 월 25 일 금요일_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오신 케이크와 과자들을 펼쳐놓고 조출한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미술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규담 오빠가 선생님과 함께 케이크를 자를 때는 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이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커다란 도화지에 색칠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미술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가시면 다음 미술수업이 있을 때까지 원하는 만큼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반복해서 즐거운 작업을 하다 보면 미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6 학년 규담이 오빠가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오빠는 6 학년답게 스케치는 제일 잘하지만, 색칠을 할 때면 모든 색을 섞어서 검정과 같은 요상한 색을 만들어 칠해 놓습니다. 잘된 스케치도 색깔 속에 파묻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벽화 공부 때에도 규담이 오빠가 붓을 들고 나타나면 모두 긴장을 하고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면서도 역시나 하고 실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규담이 오빠가 이제는 산뜻한 색상으로 멋진 스케치 실력을 마음껏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미술선생님의 수제자라고 잘난 척 하는 건 좀 꼴불견이지만 멋진 화가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규담이 오빠만 멋진 화가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나’를 멋지게 그린 은영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그림을 많이 그린 윤호, 언제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연지, 좀 더 빨리 우리랑 함께 미술수업을 받았으면 좋았을 한솔이, 그리고 미술을 정말 좋아하게 된 나.

이렇게 우리들은 그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변함없는 하늘, 언제나 그대로인 바다와 모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게 해주신 미술선생님과 우리학교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참! 멋진 벽화와 아름다운 작품들로 꾸며진 고파도 갤러리가 궁금하시죠? 제가 안내를 해 드릴 테니 꼭 오세요!”

파란 바닷물이 꽃무늬 지는 고파도呢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에 있는 섬입니다. 해안선 길이가 4.5 km인 작은 섬이죠. 섬의 가장 높은 곳이 69m 로, 대부분의 지역이 낮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섬의 북쪽에 마을이 있고, 북서쪽에 길이 약 400m 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물이 맑고, 조용합니다. 간조 때가 되면 자연적인 모래톱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볼거리 입니다. 여름에는 이 해수욕장에서 가무락조개와 소라, 낙지, 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화가 가득 피어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학교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벽화와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고파도 갤러리’ 입니다.

서산시 고파도 팔봉초등학교 고파도 분교에서 진행된 <도서(島嶼)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